

NEWSLETTER

FRIENDS OF ASIA AND ASIAN FORESTS

2024 #1

01 Highlight

Friends of Asia and Asian Forests (FAAF) 출범

Interview : 문국현 FAAF 공동 위원장

02 News Brief

동티모르, 산림의 날 행사와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선포

우리은행-AFoCO-캄보디아 산림청, 캄보디아 메콩 REDD+사업 착수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도 시행

AFoCO, 라보뱅크 Acorn 사업 본격화

기타 뉴스 요약

03 Global Trend

2023년 자발적 탄소시장 분석

2024년 자발적 탄소시장 전망

Verra, 산림 탄소 전략 2024-2026 발표

GEF,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기금 론칭

World Economic Forum의 The Global Risks Report 2024

제6차 유엔환경총회

04 Review

Science Expert Voice: 산림탄소크레딧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제안

새로운 VCS REDD 방법론의 도입과 시사점

국립산림과학원, REDD+국제감축사업 민간부문 인식 현황 분석 결과

05 Impact Story

06 Upcoming Event

Friends of Asia and Asian Forests (FAAF) 출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UN의 2030 지속가능 발전목표(SDG)에 기여하고, 산림을 통한 기후솔루션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기구,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2월 6 일 웨스틴 조선호텔(서울)에서 기후행동 협력플랫폼인 아시아 포레스트 프렌즈(Friends of Asia and Asian Forests, FAAF)를 런칭하고 제1회 포럼을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비롯해 문국현 뉴 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가 공동의장으로 참석하였으며 한국경제인협회와 유한킴벌리, 포스코, 우리은행, NH투자증권, 신한은행, CJ제일제당, 풀무원, 고려아연, 티웨이 항공, 삼성문화재단, 에코서비스컨설팅, 야긴코 퍼레이션 등 다수의 기업뿐만 아니라 산림청, 코이카, UN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한국임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에서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행사 시작과 함께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Keynote Remark를 통해 산림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면서,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산림복원을 핵심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들이 FAAF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국현 공동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남성현 산림청

장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AFoCO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실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서 유연철 유엔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홍석화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서면)이 축사를 통해 FAAF의 사명과 향후 방향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계속된 세션에서 박종호 AFoCO 사무총장의 기조발제를 필두로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 Chris Amitage Global Evergreening Alliance 대표, Jelmar van de Mortel 라보뱅크 ACORN 대표, 김성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등 4명의 발표가 이어졌고 문국현 공동위원장의 사회로 토론 및 Q&A 시간이 진행되었다.

FAAF는 매년 정기 포럼을 통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ESG 등과 관련된 정책, 동향 및 사례 등을 공유하고 산림탄소사업이나 나무심기 등 기업의 관심과 아시아 국가의 니즈를 연결하는 다양한 산림부문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FAAF의 추진 전략

- 산림기반 또는 자연기반해법(NbS)은 공공과 민간의 행동이 필요한 탈탄소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비용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로서 2030년까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좀 더 즉각적이고 많은 노력이 필요함.

- FAAF는 이를 위한 전략적 방향성으로 ▲ 아시아기후 리더십 선도 ▲ 산림탄소사업과 NbS 이행을 통한 아시아지역 연간 메가톤 탄소 감축 ▲ 기업의 ESG 활동과 국가 니즈를 연결하여 공유가치 창출 등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액션 위주의 활동을 연간 추진할 계획임.



Interview

문국현 FAAF 공동 위원장

3월 11일, AFoCO 사무국에서 FAAF 공동 위원장이신 문국현 대표와 AFoCO와 기업의 역할, 그리고 향후 방향 등에 대해 들었다. 유한킴벌리 CEO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운동을 주도한 기업인이자 전 국회의원 정치인이신 문국현 대표는 최근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로 활발히 활동중이시며 어제 밤을 새셨다면서도 연신 웃는 얼굴이었다. 이번 인터뷰는 연합뉴스TV 박진형 앵커가 진행해 주셨다.

Q. 아시아와 아시아 산림에 특히 관심을 두신 이유는?

“최근 전 세계가 아시아를 주목하고 있다. 신흥 강국인 중국과 일본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이나 산림녹화 경험이 지금처럼 기후변화 위기가 심할 때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FoCO 회원국은 5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이는 한국 인구의 열배 수준으로 이들이 함께 한국의 산림협력 경험을 공유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아시아 50억 인구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쳐서 한국보다 100배의 인구가 함께 산림과 환경, 그리고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Q.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 파리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의 역할에 고민이 많은데...

“사실 기후위기 해결은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국가는 국가이기주의가 있어 자발적으로 선두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지자들의 표심을 무시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기업은 그런 면에서 자유롭다. 기업이 자발적, 선도적으로 SDG를 기업의 목표와 전략, 활동에 접목시킨다면 기업이 성장함과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한킴벌리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운동을 40년간 추진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유한킴벌리란 기업을 알리기 위해 홍보 비용을 많이 쓰던 때였다. 하지만 이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한킴벌리를 널리 알리게 되었고 이는 바로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이것이 또 상품의 원가를 줄이고 신기술 도입을 통한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게 되어 매출이 더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유한킴벌리는 20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즉, 기업들은 이윤 추구와 기후 위기 해결을 동시에 할 수 있다.”



Interview

문국현 FAAF 공동 위원장

Q. 이러한 운동을 국제기구인 AFoCO란 플랫폼을 활용하려는 이유는?

“AFoCO는 조약을 기반으로 한 정부간 국제기구로 아시아 16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AFoCO는 이렇게 정부가 직접 참여하고 있어서 산림과 기후변화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며, 국가에서 제공한 정보이니만큼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의 네트워크를 가진 AFoCO가 아시아의 발전과 산림복원,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기업들과 협업한다면 아시아 기후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도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Q. 이번 FAAF를 운영하는 방향이나 전략이 있으시다면?

“FAAF는 나무로 치면 이제 막 떡잎이 나온 상태로 큰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AFoCO는 회원국들과 약 43개의 기후변화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제는 AFoCO의 장점을 잘 살려서 기업이 기후변화 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이에 AFoCO는 기업을 도와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대상지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모니터링해서 기업이 원하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렇게 한 국가당 하나의 성공 사례(Best Practice)를 만든다면 아시아 지역에 16개의 성공 사례가 될 것이고, 또 이것이 100개 또는 그 이상으로 계속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Q. 마지막으로 FAAF를 통해 기업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업들은 AFoCO를 통해 FAAF란 플랫폼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으니 기업이 혼자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절반 이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AFoCO의 기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사업 진척 속도가 빠르며 또 전문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단지 기업 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도 얼마든지 기후변화와 산림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또는 경험으로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생명의 숲 국민운동이나 유한킴벌리 몽골사업을 통해 개인들이 참여한 나무심기 행사를 많이 진행해 보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호응도 좋았다.

끝으로 아시아 공동번영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앞장설 FAAF100 (100개 리더의 모임)에 참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FAAF100을 중심으로 더 많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동티모르, 산림의 날 행사와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선포

1월 12일 동티모르 산림의 날에 AFoCO는 동티모르 농림축수산부와 함께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동티모르 마나투투현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마르코스 다 크루즈(Marcos DA CRUZ) 동티모르 농림축수산부 장관, 페르난디노 뷔에라 다 코스타(Fernandino VIEIRA DA COSTA) 동티모르 산림부 차관, 남성현 대한민국 산림청장, 박종호 AFoCO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지역주민 200여명과 함께 나무심기에 참여했다.



나무심기 행사와 더불어 진행된 ‘동티모르 녹화를 위한 기후 액션’ 선포식에는 동티모르 농림축산부, 대한민국 산림청, AFoCO가 향후 10년 동안 1,000만그루 나무를 심어 황폐화된 동티모르를 복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1990년부터 약 27만ha가 황폐화된 동티모르 산림을 녹화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의 첫 걸음으로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녹화 경험을 AFoCO 사업을 통해 동티모르에 전수하는 뜻 깊은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AFoCO -캄보디아 산림청, 캄보디아 메콩 REDD+ 사업 착수

1월 16일, 우리은행은 AFoCO 및 캄보디아 산림청과 함께 메콩 REDD+ 사업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식은 프놈펜의 캄보디아 산림청에서 진행되었으며, 김홍주 캄보디아 우리은행 법인장, 진선필 AFoCO 사무차장, 케오 오말리스 캄보디아 산림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은행은 이 사업을 통해 토양 침식 및 범람 위험을 완화하고, 220종의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전은 물론 공동체 임업(Community Forestry)의 토지소유권 및 임업경영계획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및 농업 모범 사례를 발굴하는 등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 활동의 일

환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향후 30년 간 캄보디아 북부 메콩강 상류에 위치한 스텡트렝(Stung Treng) 주 내 12개 공동체가 관리하는 약 3만ha 규모의 산림을 보전하는 것으로 Verra VCS를 적용하는 자발적 탄소사업으로, 기존의 방법론을 보완한 신규 REDD+ 방법론을 적용할 계획인데, 우리은행은 탄소 크레딧 판매 수익 전액을 사업에 재투자하여 선순환 구조 이행할 예정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 신고제도 시행 [바로가기](#)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활동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으로 종합계획 수립, 한국형 운영표준 마련, 실태조사, 민간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산림청에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이 신고·수리된 기업은 시장개척, 사업 컨설팅, 기술개발 보급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외산림탄소증진 사업 지원 신청 항목¹ [바로가기](#)

- ☑ 사업대상인 개발도상국의 제도 및 이행역량 강화, 시장 개척, 정보 제공, 사업 컨설팅 등
-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이행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 관련 전략 수립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개발도상국의 산림배출기준선 설정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개발도상국의 산림데이터베이스 및 산림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 ☑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지소가능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AFoCO, 네덜란드 Rabobank와 혼농임업을 통한 탄소상쇄 사업 본격화

AFoCO는 2023년 9월 4일 네덜란드 협동조합은행 Rabobank와 ‘혼농임업을 통한 탄소 상쇄 협력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FoCO는 Rabobank의 탄소 직접 거래 플랫폼인 ACORN²을 활용하여 소작농을 대상 혼농임업 참여 및 탄소 크레딧 판매 수익을 통해 탄소흡수원 증진 및 주민 생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AFoCO는 지난 11월부터 키르기스스탄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ACORN 사업 참여 절차를 시작하여 2월 기준 1,220가구가 사업에 등록하였다. 지난 1월에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지역주민 워크숍 및 사업대상지 타당성을 조사하였고 연내 지역주민의 사업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다. 향후 AFoCO와 라보뱅크는 라오스, 태국 등 다른 AFoCO 회원국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¹ 출처: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² ACORN은 Agroforestry CRUs for the Organic Restoration of Nature의 약자로 Rabobank가 Plan Vivo 재단과 협력하여 개발한 개발도상국의 소작농을 위한 혼농임업 전용 carbon offset 프레임워크다. 위성데이터를 사용한 바이오매스 측정 등 인증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다른 표준과 달리 소작농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어 소규모 자작농도 탄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뉴스 다이제스트

- 1월 14일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 연차 총회에서 100개 이상의 기업이 120억 그루 나무를 심기로 약속하였다.³
- 1월 15일 호주 정부가 지원하는 Blue Carbon Accelerator Fund는 2번째 라운드로 4개 프로젝트와 자금 수령기관⁴을 선정 발표하였다.
- 1월 16일 다보스 포럼에서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는 46개국 320개 기관이 지난해 확정된 TNFD⁵ 권고안 기반의 자연자본 공시를 약속했다고 발표하였다.
- 1월 23일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KLHK)와 미국 산림청(USFS)은 인도네시아의 FOLU Net Sink 2030(2030년까지 산림을 순 흡수원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지원하는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하였다.
- 2월 2일 몽골 UNDP와 몽골 환경관광부는 중국국제 개발협력기구(CIDCA)가 자금을 지원하는 “몽골 녹색 회복을 위한 산불 진화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서명하였다.
- 2월 13일 UNEP과 FAO는 ‘UN Decade on Ecosystem Restoration’의 일환으로 7개 이니셔티브⁶를 세계 복원 플래그십으로 선정 발표하였다.
- 2월 15일 베트남은 Tuyen Quang에서 열린 국가 식목 축제 개막식에서 지난 3년간 7억 7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며 2025년까지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 2월 22일 Microsoft는 기후금융회사인 Catona Climate와 6년간 케냐의 혼농임업 프로젝트를 통한 35만톤의 탄소 제거 배출권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2월 22일 New Forests의 Tropical Asia Forest Fund(TAFF)⁷는 태국 Kuan Kreng 경관 이탄지 보존 및 복원 프로젝트에 투자를 발표하였다.
- 3월 12일 몽골 환경관광부와 유럽투자은행(EIB)은 도시 개발 및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해 총 5,440만 유로를 지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3월 18-28일 AFoCO는 한국과 프랑스의 후원을 받아 AFoCO 회원국 산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태국 간 차나부리에서 산불 진화 및 관리방안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산림의 날로서 2024년도 주제는 ‘숲과 혁신’. AFoCO는 산림청과 함께 이번 기념행사를 회원국 대사님, 국제기구 대표 등을 모시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최하였다.

³ 1t.org는 UN 생태계 복원 10년(UN Decade on Ecosystem Restoration)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조 그루의 나무를 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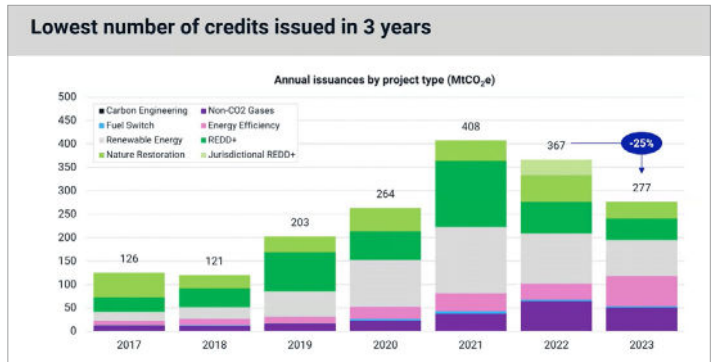
⁴ EcoSecurities(말레이시아 Rajang Delta), Forest Carbon(인도네시아 Misool 섬), RARE(필리핀 Tañon Strait Protected Seascape), RePLANET(인도네시아 솔라웨시 남동부 마을).

⁵ TNFD(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는 2021년 6월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자연기금(WWF) 등의 주도로 설립.

⁶ 지중해 산림 복원 이니셔티브(레바논, 모로코, 튀니지, 튀르키예), Living Indus 이니셔티브(파키스탄, 호주,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에콰도르, 인도, 뉴질랜드, 페루, 스리랑카), 페루 Acción Andina, 스리랑카 맹그로브 재생 이니셔티브, Terai Arc Landscape 이니셔티브(인도, 네팔), 아프리카의 농업 재녹화, 아프리카의 건조지대 산림 재배 이니셔티브.

⁷ TAFF2는 동남아시아의 상업용 산림 투자를 생태계 복원, 재조림, 지역사회 산림과 같은 활동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폐쇄형 펀드로서 금년말까지 3억달러 조달계획임. 투자자로는 Mitsui, Nomura, ADB, 호주 정부, David and Lucile Packard Foundation, Hempel Foundation, Sumitomo Mitsui Trust Bank, TotalEnergies 및 Temasek(싱가포르 국부펀드) 소유 투자 플랫폼 회사인 GenZero가 있음.

2023년 자발적 탄소시장 분석⁸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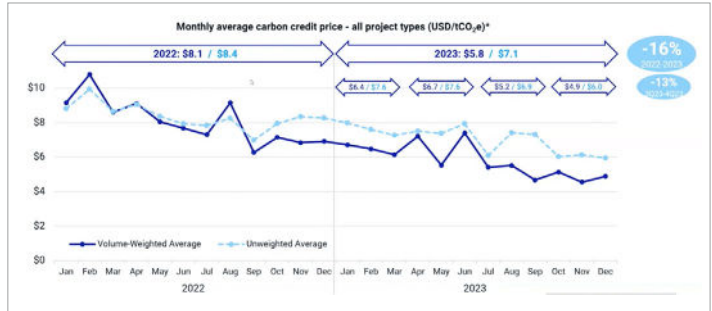
연간 자발적 탄소크레딧의 발행량은 277MtCO₂e로, 전년도 대비 25%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 3년간 발행량이 가장 적은 해였으며, 자연기반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크레딧 발행량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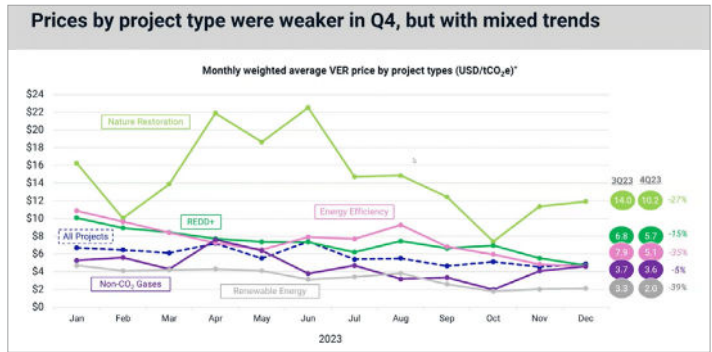
2023년에는 총 178MtCO₂e의 크레딧이 소각되었다.

Shell이 16MtCO₂e를 소각하여 가장 많은 양의 크레딧을 소각하였으며, 8MtCO₂e를 소각한 폭스바겐이 뒤를 이었다.



에너지 효율과 REDD+ 사업에 대한 언론과 학계의 조사가 강화되었으며, 가격 하락이 확인되었다.

REDD+, 에너지효율, 비-이산화탄소 가스 사업의 크레딧 당 가격은 4.65 달러로 확인되었다.



2023년 평균 크레딧 가격은 7.1 달러로, 2022년에 비해 1.3 달러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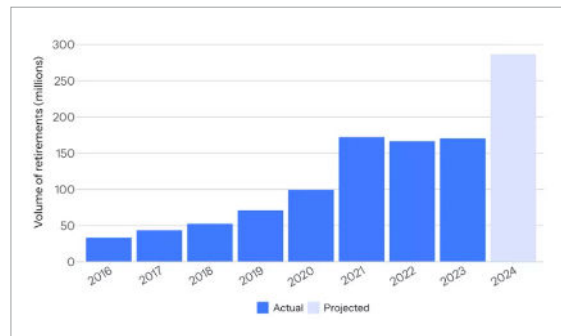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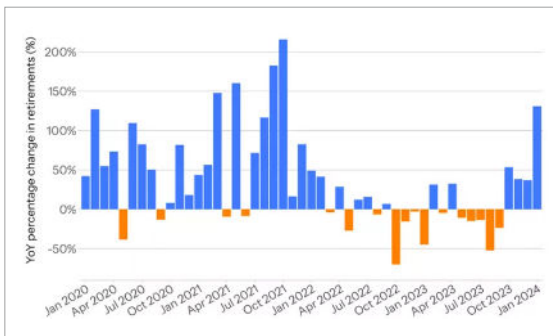
2022년의 감소 추세는 2023년 상반기까지 이어졌으나, 하락폭은 16%로 그리 크지 않았다.

⁸ CarbonCredits.com의 "Carbon Market Chronicles: 2023 Unveiled and 2024's Inflection Points"를 참고함.

2024년 자발적 탄소시장 전망

BeZero: 자발적 탄소 시장, 2024년 30억 달러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바로가기

- 탄소 등급 평가 기관인 BeZero Carbon은 2024년에 2억 5천만 톤의 탄소크레딧이 소각되어 자발적 탄소 시장의 가치가 연간 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BeZero Carbon은 시장에서 품질이 높은 탄소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탄소크레딧의 품질이 시장 전반에서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 BeZero Carbon의 창립자인 세바스티앙 크로스에 따르면, 자발적 탄소시장이 지난 2년간 성장이 정체된 어려운 시기를 보냈으나,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다.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수십억 달러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였다.



BloombergNEF: 탄소시장은 2050년 톤당 238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시험대에 놓임 바로가기

-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는 2023년은 지속적인 조사와 평판 문제로 인해 자발적 탄소시장에게 어려운 한 해였으며, 2024년이 신뢰성 회복 여부에 따라 탄소시장의 미래가 결정되는 해라고 보았다.
- 탄소시장의 성공 여부는 탄소크레딧 수요와 크레딧의 신뢰성에 결정될 것이며, 미래의 시장 및 수요 구조에 따라 세가지 탄소크레딧 가격의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1. 고품질 시나리오	2. 자발적 시나리오	3. 흡수 시나리오
정의	탄소크레딧 무결성 문제 해결	탄소크레딧 무결성 문제 존재	탄소흡수사업 크레딧만 구매
예상가격	2030년: USD20/tCO2e 2050년: USD238/tCO2e	2030년: USD13/tCO2e 2050년: USD14/tCO2e	2030년: USD146/tCO2e 2050년: USD172/tCO2e
시장규모	2050년: USD 1조1,000억	2050년: USD 340억	2050년: USD 8,840억

Verra, **산림 탄소 전략 2024-2026 발표** 바로가기

2월 15일, Verra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산림탄소 전략 2024-2026(Forest Carbon Strategy 2024-2026)”을 소개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Verra는 탄소시장의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하여 작년 9월, 30개 이상의 조직과 경청 투어를 진행하였고,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전반에 걸쳐 500명 이상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작성된 Verra의 산림탄소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전 및 전략목적

비전

산림 탄소 방법론의 무결성과 유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원주민과 지역사회를 존중하고 혜택을 제공하여 산림 전용과 황폐화 방지 및 산림 탄소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기관 규모의 투자 및 활용을 촉진

전략목적

- 산림탄소 활동은 자발적 탄소시장과 파리협정 제6.2조의 대규모 배출 감축 및 흡수 동력이다.
- 산림탄소 활동을 통하여 정부 프로그램과 전략의 발전을 돕는다.
- 산림탄소 활동을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되며 투명한 방식으로 최신 과학과 기술을 활용하도록 최적화한다.
- 배출 감축과 흡수를 포함하는 산림탄소 활동은 높은 건전성을 가진 기업이 사용한다.

GEF, **생물다양성 기금 론칭**

2월 8일과 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66차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GEF)이사회에 연이어 제1차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기금(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Fund, GBFF)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사회에서는 24-25년도 계획 및 예산이 승인되었고, GBFF를 통해 향후 개발 및 실행될 사업과 관련된 간소화된 프로젝트 사이클 정책이 승인되었다.⁹ 바로가기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KM-GBF)는 2022

년 12월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UN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UNCBD COP15)에서 채택되었으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기후협약의 생물다양성 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UNCBD는 KM-GBF 실천목표 19에 따라 2030년까지 매년 최소 2,000억 달러(약 266조)를 모집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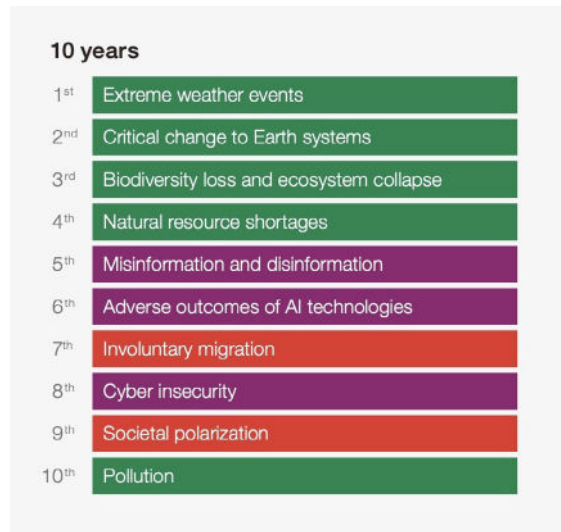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배출권에 대한 수요는 2030년 까지 연간 70억 달러, 2050년까지 연간 1800억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¹⁰

⁹ GEF의 프로젝트 준비 보조금이 승인되면, GEF 이행 기관은 약 9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된다.

¹⁰ World Economic Forum in collaboration with McKinsey & Company, Biodiversity Credits: Demand Analysis and Market Outlook(2023).

World Economic Forum의 The Global Risks Report 2024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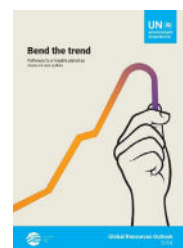
세계경제포럼 보고서에 따르면 기상 이변,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올해 새로 등장), 생물 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가 향후 10년 인류가 직면할 3대 위험으로 나타났다.



제6차 유엔환경총회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의 유엔환경 계획(UNEP) 본부에서 193개국 대표를 포함해 5600 여명이 참가한 제6차 유엔환경총회(UN Environment Assembly)가 열렸다. 총회는 토지황폐화에 대한 최초의 결의안을 포함한 15개 결의안 승인으로 마무리했다. 세계 지도자들은 기후 변화, 자연 손실 및 오염이라는 삼중 지구 위기에 대한 다자간 조치를 가속화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총회에서 발표된 2024년 Global Resource Outlook 보고서는 지구의 천연 자원 추출이 지난 50년 동안 3배 증가했으며, 글로벌 소비와 생산을 줄이기 위한 긴급하고 공동의 조치가 없으면 천연 자원 추출이 2020년 수준보다 60% 증가하여 기후 피해가 증가하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Science Expert Voice:

산림탄소크레딧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제안¹¹ 바로가기

산림은 지구 상에서 가장 중요한 탄소흡수원 중 하나로, 약 861억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는 인류가 한 세기 동안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탄소 양과 거의 동등한 수준이다. 또한 적절한 산림경영을 통하여 추가적인 2,260억 톤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산림을 보전하고 탄소흡수원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은 제도와 기술, 재정 동원 등 상당한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

자발적 탄소 시장의 등장으로 산림탄소사업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보고에 따르면 배출 감축량의 과대 추정, 인증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 부족, 지역사회와 약속한 혜택의 제공 실패 등 시스템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산림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은 여전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¹²

산림탄소크레딧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제안

- 1 탄소크레딧의 발생량에만 중점을 둔 왜곡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거하여 인증자와 감사인이 고객에게 가장 낙관적인 현실 버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성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함.
- 2 산림탄소 방법론과 측정에 대한 보수적이며 보편적인 표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측정 방법을 검증하고 표준화하는 제도적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함.
- 3 최근의 사회과학 연구기법의 혁신을 활용한 사업 설계를 통한 탄소사업의 추가성¹³ 입증을 통하여 탄소크레딧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음.
- 4 산림탄소의 비영속성¹⁴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대신 산림탄소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지연으로 인한 가치를 고려해야 함.
- 5 디지털 결제 및 블록체인 검증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지역 사회에 약속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¹¹ Science, Vol. 383, No. 6679에 실린 Rohini Pande의 "Fixing Forest Carbon Credits" (2024년)를 참조함.

¹² 아랍에미리트에 본사를 둔 중개업체 블루카본(Blue Carbon)은 라이베리아 국토의 10분의 1, 짐바브웨 국토의 5분의 1, 케냐, 잠비아, 탄자니아의 광대한 토지에 걸쳐 산림을 관리하는 계약을 협상 중이며,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계획임.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미국 정부는 베조스 지구 기금 및 록펠러 재단과 함께 '에너지 전환 가속기'를 발표했는데, 이는 '고결성' 탄소배출권 사용을 목표로 함. 유엔은 파리협정 제6.4조를 통해 공식적인 국제 탄소 거래 메커니즘에 자발적 탄소시장을 포함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COP28에서 합의에는 실패함.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는 자발적 탄소 시장 개발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으며, 미국에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자체 규칙을 개발 중.

¹³ 탄소사업의 추가성(Additionality)이란 탄소사업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배출원에 의한 배출 감소 또는 흡수원에 의한 흡수량 보다 추가적인 배출 감소 또는 흡수량 증가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함.

¹⁴ 산림 및 토지 이용을 통한 감축활동은 획득한 탄소 배출 감축량 및 흡수량이 벌채, 자연재해 등으로 감소하는 비영속성 위험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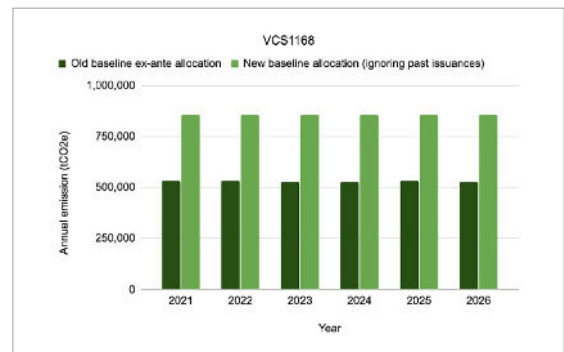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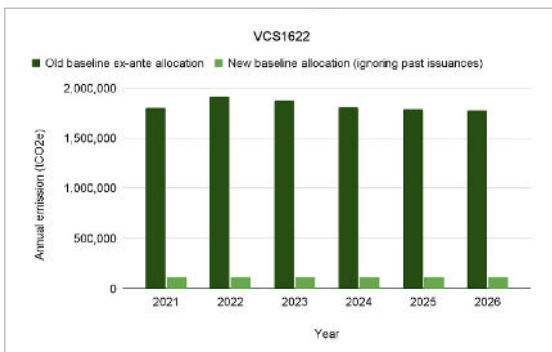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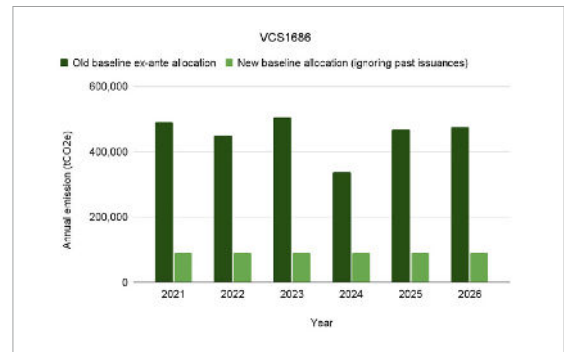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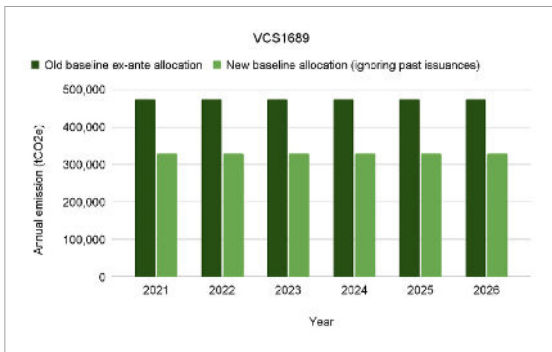
새로운 VCS REDD 방법론의 도입과 시사점 ¹⁵ 바로가기

산림을 보전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접근법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VCS의 REDD 사업을 통한 지역기반 탄소사업이 수행되었다. 최근 REDD사업의 감축효과가 과대평가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VCS는 새로운 준국가 및 중첩형 REDD(Jurisdictional and Nested REDD)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새로운 방법론이 기존 REDD사업의 기준선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다.

VCS 등록부에 등록된 4개의 REDD¹⁶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3개의 사업은 이전 방법론에 비해 발급될 크레딧 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REDD 방법론은 기준선이 부풀려질 가능성을 줄임으로서 더 높은 품질의 크레딧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VCS REDD사업의 기존 기준선과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기준선 비교

(Meena, D. P., Bhandari, K., & Ghosh, S. M., 2024)



¹⁵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Vol. 351에 실린 Meena, D. P., Bhandari, K., & Ghosh, S. M.의 "Implication of the new VCS jurisdictional and nested REDD methodology on baselines of existing avoided deforestation projects" (2024년) 를 참조함.

¹⁶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사업(Reduction of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REDD).

국립산림과학원, REDD+국제감축사업 민간부문 인식 현황 분석 결과

지난 2월에 개최된 2024 산림과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은 민간부문의 REDD+ 국제감축사업 인식 현황 및 참여의도¹⁷를 조사하고, 구체적인 민간부
 문 지원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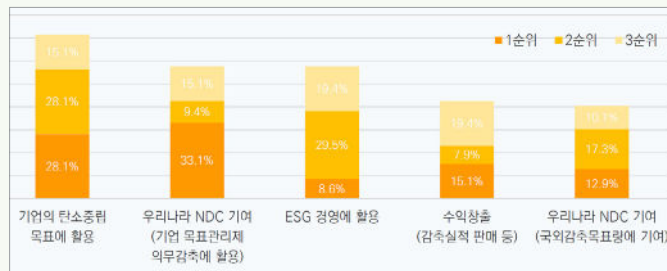
국내 잠재적 REDD+ 국제감축사업 참여 기업 및 단체 871개를 대상으로 수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민간부문의 인식 현황 분석 결과

- 파리협정 제6.2조 기반 REDD+ 사업을 통한 NDC 목표 기여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확인됨.
- REDD+ 사업 참여 의사는 '검토 중(미정)' 응답을 포함하여 41.2%가 긍정적으로 답변함.
- REDD+ 사업 계획이 있는 응답자 139명의 사업 참여 목적은기업의 탄소중립 목표에 활용(71.3%), 기업 목표관리제 의 무 감축에 활용을 통한 NDC 기여(57.6%), ESG 경영에 활용(57.5%), 수익창출(42.4%), 국외감축목표량에 기여를 통한 NDC 기여(40.3%)순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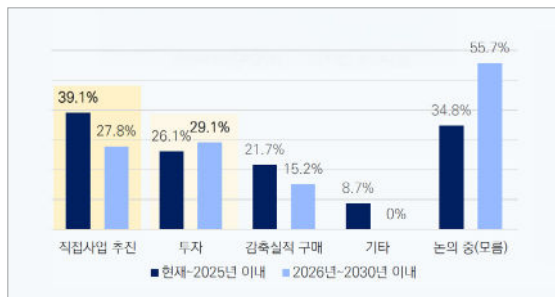
REDD+ 사업 참여 목적 (BASE 1)

BASE 1: 파리협정 제6.2조 기반 REDD+ 사업 계획이 있는 응답자(N=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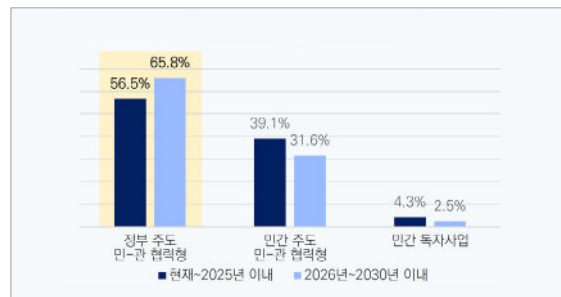
사업 시작 예상시기별 선호하는 참여 방식 (BASE 2)

BASE 2: 사업 시작 예상시기가 2030년 이내인 집단(N=139)



- 2030년 이내 사업참여 계획이 있는 경우, 가장 선호하는 사업 참여 유형은 직접사업 추진, 가장 선호하는 협력 유형은 정부 주도 민-관 협력형으로 확인됨.

사업 시작 예상시기별 선호하는 협력 유형 (BASE 2)



- 사업 참여 계획이 있는 응답자들은 자원 마련의 어려움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았으며, 응답자의 41.9%가 REDD+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부과금 제도 도입에 지불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함.

¹⁷ "송민경, 이윤정, 김래현, & 이호상. (2024). REDD+ 국제감축사업 민간부문 인식 현황 분석. 2024 산림과학 공동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를 참조함.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맹그로브(Mangrove)는 염도가 높아 대부분의 나무가 살 수 없는 해안가 및 기수(brackish water)역에 서식하는 열대 수종으로 베트남을 비롯한 열대 및 아열대 지역 123개국의 해안과 하구를 따라 발견된다. 맹그로브 숲은 지구상 열대림의 1% 미만(약 14.8M ha, 이 중 약 51%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분포)에 지나지 않지만 전 세계 약 2.4억명에 해당하는 해안가 거주민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¹⁸ 최근에는 탁월한 탄소 저장 능력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연기반해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¹⁹

베트남 북부 홍강 삼각주(Red River Delta)에 위치한 타이빈(Thai Binh)주에는 4개의 큰 하구와 만나는 약 54km의 해안을 따라 맹그로브 숲이 자리하고 있다. 이 지역은 베트남의 3대 맹그로브 서식지 중 하나였으나 1950년대 이후 50년의 기간 동안 전체 맹그로브 숲의 약 80%가 소실된 바 있다. 이에 AFoCO는 베트남 정부와 함께 지난 10년 간(2014년~2023년) 약 150만불 규

모의 타이빈 지역 맹그로브 숲 복원사업을 수행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160ha 규모의 신규 맹그로브 숲이 성공적으로 조성되었고 훼손된 맹그로브 숲 800ha를 효과적으로 복원하였다. 특히 본 사업에서 조성한 맹그로브 숲 묘목의 생존률(전체 사업기간 동안 85%를 상회)은 지금까지의 유사한 다른 사업(3년 평균 생존률 약 50%)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와 같은 성공적 사업추진의 배경에는 장기간의 안정적인 지원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고 현장 사업팀은 전한다. 본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지에 가장 적합한 실행계획 수립이 가능하였고, 지역주민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지 관리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였다. 특히 탁월한 묘목 생존율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 조림지 관리와 안정적 수익창출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짐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인정한 타이빈 주정부로부터 생태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베트남 타이빈 주 Thuy Xuan 지역 맹그로브 식재 모습



2015



2019

¹⁸ 맹그로브 숲은 견고한 뿌리를 바탕으로 자연방파제 기능과 더불어 1,533종 이상 다양한 해양생물종의 서식지로서 목재를 포함한 지역 주민의 주요 소득원을 제공. 맹그로브 숲이 연간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ha당 33,000불~57,000불로 추산.

¹⁹ 해양 생태계는 육상 생태계에 비해 최대 50배 이상 빠르게 탄소를 흡수하며, 대표적 해양 생태계인 맹그로브 숲의 단위면적 당 탄소 저장량(Blue Carbon)은 ha 당 약 1,000t 정도로서 지구상 육상 및 해양 생태계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임.

AFoCO 특별총회 AFoCO Special Assembly

(4.16-17,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AFoCO는 4월 16-17일 양일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회원국 대표단들과 제10회 특별총회를 개최한다. 총회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번 특별총회에서 사무국은 아시아 포레스트 프렌즈(Friends of Asia and Asian Forests, FAAF) 출범을 보고하고 민간 협력을 위한 산림 사업지 제공 등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FAAF 참여를 유도하고 총회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제19차 UN Forest Forum

(5.6-10, 미국 뉴욕)

5월 6일부터 뉴욕 UN 본부에서 제 19차 UN 산림포럼이 열린다. 유엔 시스템에서 산림분야를 총괄하여 다루는 공식기구로서, 현재 유엔경제사회국(DESA) 산하에서 매년 1차례 운영되고 있다. 2017년 UN산림전략계획(UNSPF; United Nations Strategic Plan on Forests)을 채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산림목표(GFGs; Global Forest Goals)들의 국가 이행을 촉진한다.

몽골 국가 식목일 행사 및 민관협력 참여 숲 조성 착수

(5.10, 몽골 테를지 국립공원)

5월 10일 몽골 울란바토르 인근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몽골의 국가 식목일 행사를 AFoCO와 몽골 정부가 함께 거행한다. 이번 행사는 몽골의 10억그루 나무심기의 확산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의미에서 민관협력 참여숲 부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2026년까지 민관의 참여로 약 12ha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테를지 국립공원은 매년 20만명 이상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으로 홍보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6차 IUFRO World Congress

(6.23-29, 스웨덴 스톡홀름)

5년 간격으로 개최되는 IUFRO 세계총회는 2,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림행사 중 하나이다. 6월 23일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세계 각지의 과학자와 이해관계자를 모아 산림 연구, 정책 및 관리의 우선순위 분야와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Let's Forest 아시아 원정대가 출범합니다.

AFoCO에서는 기업들에게 현장견학을 통해 아시아 산림을 대상으로 한 ESG 및 사업 발굴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숲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1회 행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몽골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국가 식목일 행사에 참여하고 몽골의 산림부문 이슈와 솔루션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의: 김형민 (Tel: 02.785.8964 / E-mail: kimhm0217@afocosec.org)





NEWSLETTER

FRIENDS OF ASIA AND ASIAN FORESTS

0733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심팩빌딩 12층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국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12F. SIMPAC Building, 52, Gukjegeumyung-ro
Yeongdeungpo-gu, Seoul 07330,
Republic of Korea

www.afocosec.org
info@afocosec.org
+82 2 785 8971 (T)
+82 2 785 8970 (F)

